

제11강 자살, 재앙을 부른다 5

C 불교의 천도재와 구명시식

구명시식을 3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차길진 법사는 우리 사회의 자살률 급증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만약 영계에서 '자살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정말 권하고 싶다. 자살자 영가들이 영계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면 자살률이 푹 떨어지리라 그는 장담한다. 불교에서는 자살도 타살로 분류된다. 누군가 자살자를 피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 어찌됐건 자살은 절대 미화될 수 없다. 자살은 자신을 살인하는 범죄다. 영계에서도 자살자는 살인범처럼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자살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고뇌의 길로 가는 직행 코스인 것이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은 흔히 생과 사의 갈림길이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혼의 세계로 가는 분기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길을 거쳐 새로운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누리게 된다. 영육이 합일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유명을 달리해 영혼의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누리는 것 역시 자기의 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삶이 나름대로 법칙에 얽여져 가게 마련이듯이 영혼살이, 즉 내생에도 일정한 궤도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변칙 없는 법칙이 없듯이 이생이든 내생이든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생에서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하도 많아 이상이 정상인 것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흔하다. 영혼의 세계에서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다. 한은 정상을 뛰어 넘어 비정상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된다."¹⁾

“자살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

"자살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더라고요."

차법사의 구명시식에 나타난 자살자 영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자살은 안 된다. 수많은 자살자 영가들은 자살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현재 살아있을

1) 차길진 <영혼의 X파일 1> (후암, 2007년) 105쪽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끔찍한 모습으로 구명시식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 잊고 잠이나 자자'는 심정으로 자살을 선택했지만, 죽은 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구명시식에 나타난 자살자 영가들은 천도하기도 힘들다. 자살자가 갖고 있는 원한도 크지만 무엇보다 영계에서 자살자에게 내린 벌이 엄중해 아무리 구명시식이라도 함부로 그 죄를 덜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²⁾

어느 날 P 여사는 차길진 법사가 진행하는 구명시식에 참석했는데, 그의 뒤에 일본 여인이 함께 따라왔다. 차법사가 P여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외삼촌댁에 일본 여성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일이 그이 친척이 일본에 머물 때 일본 여인 마사코와 사랑하게 되어 우리나라에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사코는 산도 설고 물도 설은 우리나라에, 오직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건너오게 된다. 결국 국경을 뛰어넘은 두 청춘 남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연인들의 사랑도 오래가지 않았다. 마사코가 사랑 하나만을 믿고 찾아온 남편이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 여자와 눈이 맞아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여자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마사코에게 다가온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결국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인생을 모두 주고 낯선 산천을 찾아온 마사코는 자신의 빼앗긴 사랑을 저주하며 낯선 땅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의 길을 택하게 된다. 마사코의 영혼은 일본을 건너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땅을 떠돌게 되어 그의 영혼은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살을 한 영가들은 영혼의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다. 자살했던 순간의 고통이 죽어서 영혼이 된 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마사코의 영혼은 바로 '죽으면 살아 있었을 때의 고통을 잊을 줄 알았는데 죽으니 더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영혼이 원하는 지방은 도쿄의 북쪽에 있는 하코다테라는 곳이었다. 차법사는 그녀의 한과 고통을 위로하면서 죽어서 구천에 자리를 잡지 못한 그녀의 영혼을 일본으로 천도했다.³⁾

어떤 여성이 딸을 위한 구명시식을 해주고 싶다고 차길진 법사를 찾아왔다. 부인의 딸은 중학교 3학년생이었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이제는 다른 세계에서 한이 맺혀 있을 소녀와의 만남을 위해 구명시식을 행했다. 소녀는 생전에 차법사와 안면이 있던 아이였고 소녀의 영혼도 차법사를 금세 알아봤다. 소녀가 죽은 지 얼마쯤 지나서부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내아이들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녀의 친구 오빠가 남한산성에 놀러 갔다가 실족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생겼다. 얼마 뒤에는 소녀를 데리고 다니며 함께 어울렸던 삼촌이 필리핀에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던 또 다른 아이가 느닷없이 쇼크사한 일도 있었다.

2) 일간스포츠 2010.07.15

3) 차길진 <영혼에는 비자가없다> (후암, 2007년) 85쪽

사내애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던 소녀는 죽기 얼마 전에 친구네 집에서 삼촌들과 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 뒤,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절망감에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린 소녀의 영혼은 분노 그 자체였다. 생전에 그녀와 어울려 다니던 사내애들의 잇단 죽음도 한 맺힌 어린 소녀의 영혼이 저지른 복수였다. “법사님, 복수를 했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린 소녀의 영혼은 지쳐 있었다. 한때의 불장난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넷의 영혼들은 영계에서도 정처없이 떠돌고 있었다. 차법사는 복수의 일념으로 구천을 떠돌던 어린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안식을 취하도록 했다. 4)

어느 날 친구로부터 차법사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불치의 병에 걸려 치료가 잘되지 않자 죽음을 택했다. 그의 큰아버지 또한 자살했다. 큰아버지의 자식들인 사촌 남동생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으며, 사촌 여동생은 목매달아 죽었다. 여기에 자신에게 문득문득 엄습하는 우울증은 자살만이 살 길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친구를 위해 구명시식을 해본 결과, 일본의 게이샤의 원혼이 집안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이샤 영혼에 한을 안겨준 것은 친구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버지는 군수로 재직하던 당시 일본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는 시모노세키의 한 유곽(遊廓)에서 잠을 자게 됐다. 그는 여기서 일본인 게이샤를 만나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녀에게 몸값을 속량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한마디라도 일단 약속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일본인이다. 평생 동안 자신을 유곽에서 구해 줄 남자를 기다리던 게이샤의 배신감과 비참함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한국인 남자에 대한 한은 결국 그녀를 자살하게끔 만들었다. 이후 충주 친구의 집안을 맴돌면서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한 많은 일본인 여성의 원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명시식을 하는 동안 게이샤 여성은 쌓인 한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의 영혼을 담은 그릇으로 일본 인형과 꽃을 사서 예를 지내고는 그 꽃과 인형을 강물에 띄워 보냈다. 꽃과 인형은 한 일본인 여성의 한을 실은 듯 넘실거리면서 강물 따라 흘러 내려갔다. 남자의 한마디 말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었던 일본 게이샤 여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 그 집안의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만들고 만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도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 게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 5)

뮤직비디오에 찍힌 여자 귀신

1997년 국내 톱 가수인 L씨의 뮤직비디오에 여자 귀신이 찍힌 사건이 있었다. 지하철 기관장 옆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하얀 얼굴의 여자귀신이 서 있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사건을 의뢰받은 뒤 뮤직비디오가 촬영됐다는 광나루역 인근을 찾아갔다. 이곳은 비가 오는 날이면

4) 차길진 <영혼의 X파일 1> 105-110쪽

5) 차길진 <영혼은 비자가 없다> 102쪽

여자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들려오던 장소였다. 그 날도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염사로 영가를 초혼하자 어렵지 않게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폭우 속에 서 있는 여자 귀신. 긴 머리에 창백한 하얀 얼굴의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슬픈 어깨를 하며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스쳐지나갔지만 나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내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줬다. 비록 한 맺힌 귀신이지만 분명 여자였다.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랑에 대한 저주로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나의 우산 하나로 조금이나마 열리는 것 같았다.

"저는 여상을 졸업해 호텔 카지노에서 일했습니다." 80년대 말 모 관광호텔 앞 한강변에서 자살한 그녀는 철저히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녀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가 있었다. 그는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유학을 떠났고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자는 남자의 유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업소에서 일했다. 고졸 학력이 콤플렉스였던 여자에게 박사 남편은 인생의 전부였다. 모든 고생을 감내하며 오직 남자 친구의 박사 학위만을 위해 희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미 남자 친구는 박사 학위를 딴 뒤 현지에서 취직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부모님 벌 낮이 없었다.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남자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여자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고. "물살이 너무 썰어요. 시신이라도 건졌으면 좋았겠지만 모두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네요." 여자에게 광나루역은 특별한 장소였다. 남자 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공항 대신 지하철역에서 헤어졌다고 한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면 꼭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광나루역이었다. 잊혀진 그녀의 이름을 확인한 차범사는 다시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지도, 비 오는 날 광나루역에 나타나지도 말라며 정성스럽게 구명시식을 올려줬다. ⁶⁾

운은 변한다

얼굴에 깊은 시름을 안은 50대 남자가 차범사를 찾아왔다. "범사님, 저는 왕년에 참 잘 나갔었습니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잘 쓰고 다녔죠. 술집에 가도, 밥집에 가도 항상 지갑은 제가 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이란 게 한순간이었습시다. 40대가 제 인생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사가 망하자 모든 일이 꼬여갔다.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족들도 연락을 끊고 말았다. 친한 친구들도 자신을 피했다.

"지금 이 순간의 악운(惡運)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악운도 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범사님께서선 악운을 없애주셔야죠.."

6) 일간스포츠 2011.07.25

사람들은 악운을 없애려고만 한다. 비싼 곳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는 등 갖은 노력은 다 한다. 그러나 악운도 운이다. 악운을 잘 견디면 반드시 큰 운이 찾아오는 법이다. 미국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라고 할 정도로 큰 소나무가 많다. 그런데 바람만 세게 불면 그 큰 소나무들이 힘없이 쿵쿵 쓰러지곤 한다. 이유는 간단했다. 땅이 너무 비옥해 양분이 많다보니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한 것이다.

운도 마찬가지다. 너무 운이 좋고 복이 많으면 작은 세파에도 금방 쓰러져 재기하기 힘들다. 거둬드는 악운에 사는 게 힘들고 지치겠지만, 악운이 거둬들수록 뭔가 대박나는 좋은 운이 찾아오려나보다 생각하고 잘 견디면 반드시 큰 운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한국인은 운이 강하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악운의 시기를 인동초처럼 질기게 잘 견뎌왔기 때문이다. 운은 항상 있다. 다만 변할 뿐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변하는 운을 어떻게 행운으로 또는 악운으로 만들지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⁷⁾

D 티베트인들은 자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죽음이해와 관련해 성경,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매주 성당이나 교회, 혹은 사찰에 가는 사람이 꽤 많지만, 성경이나 불경에 나오는 죽음관련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자살이 현실 고통의 해결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자살예비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을 영위하고 죽음을 이해하다가 때가 되면 삶을 여유있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티베트의 보통 사람들은 죽음과 자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티베트 사람들의 죽음이해는 우리와는 차이는 없는 것일까. 티베트 보통 사람들의 죽음이해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촬영팀과 함께 2010년 10월 티베트 라사를 찾아갔다. 티베트인 가이드 니드롱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을 삼예산에서 만났다. 삼예산은 티베트인에게 있어서 영혼이 모이는 곳으로 통한다.

"자살이란 단어,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질문 : 티베트 사람들은 죽을 때 ‘조장’을 원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7) 일간스포츠 2010.03.04

답변 : 독수리를 통해서 조장을 할 경우 육체를 먹은 독수리가 내 육체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는 역할을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장을 원한다.

질문 :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국인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답변 : 자살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질문 : 티벳에서 자살한 사람을 보거나 들어본 적 있나?

답변 : 경험한 적 없다.

질문 : 자살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나도 자살을 예방하는 다큐를 티베트까지 와서 촬영하는 게 놀랍다.

질문 :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나?

답변 : 자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티베트는 윤회를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그 고통은 계속 된다.

질문 : 그 고통이 어떻게 연속되는가?

답변 : 티벳은 어릴 때부터 윤회교육을 받는다.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살을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질문 :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답변 :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에 있다. 삶도 과정이고 죽음도 과정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질문 : 직접 천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답변 : 본 적이 있다.

질문 : 자신도 죽으면 천장을 할 것 인가?

답변 : 천장을 하겠지만, 나는 죽은 다음에 장기를 기증하고 천장을 하겠다.

질문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삶과 죽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질문 : 본인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답변 :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조금하계 생각하지 말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라. 8)

"자살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뤼쌍, 츠디끼, 디끼왕무, 데첸 4명은 한 달 전부터 오체투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약 3백 키로를 왔다. 앞으로 4일 정도 더 계속하면 목적지 라싸의 조강사원에 도착한다고 말한다. 죄업을 씻고 다음 삶에서 보다 좋은 사람을 여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체투지 순례에 참여했다.

질문 :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답변 :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체투지를 통해 내 죄를 참회하면 다음에 더 좋은 삶을 만날 수 있다.

질문 : 어떤 죄를 씻으려 오체투지를 하는가?

답변 : 사람은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한다. 특히 농사는 수많은 동식물을 죽인다. 이런 죄를 씻으려 한다.

질문 : 오체투지를 통해 죄를 씻은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답변 : 오체투지를 통해 가정이 화목하고 다음 삶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질문 : 한 달간 오체투지를 하면서 무엇에 대해 기도하였는가?

답변 : 나 자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만물에게 기도를 드린 것이다.

질문 : 한국에서는 하루에 약40명이 자살을 하는데?

답변 :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질문 : 한국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8)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답변 :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살을 하면 자살은 수만 년이 지나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다. 자살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9)

E 최면상태에서 빛의 존재에게 물었다

삶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해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최면상태에서 빛의 존재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증언을 얻었다.

의사 : 빛의 존재에게 부탁해 보세요.10) “만약 내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했을 때의 비전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환자 : “……어둡다……깜깜하다……웅크리고 있다……(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

의사 : 깜깜합니까?

환자 :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11)

최면치료 중에 나타타난 ‘빛’을 향해 “먼저 죽은 어린 딸을 만나기 위해서 자살해도 좋은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되돌아왔다.

의사 : 빛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딸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일찍 죽어도 괜찮나요?”

환자 : “……“일이 다 끝난 후에”…… 일이 다 끝나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 : “만약 딸을 일찍 만나려고 자살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빛에게 물어봐 주세요.

환자 : “……내가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위를 보고 있습니다…… 위에는 높은 곳에 빛이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위쪽의 높은 곳에 있는 빛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사 : “이 광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에게 물어봐 주세요.

9)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10) 오진탁 <마지막 선물> 124-128쪽

11) 이이다 후미히코 <사는 보람의 창조> 378쪽

환자 : “자살하면 안 돼”…… “자살 같은 것을 하면 딸을 만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 “이대로 계속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환자 : “물론이지”라고.¹²⁾

어느 여성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정말 괴로웠다. 둘의 꿈도 모두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가 진정으로 자살을 생각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괴로웠다.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간혹 남편이 최면치료 장면에서 등장해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 울어. 당신을 위해서 우는 쪽이 더 좋아”라고 말한다. 걱정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으며 울 만큼 운 다음에는 언제나 껴안아 주었다. 팔로 껴안아 주는 것을 그녀는 실제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자살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갑자기 설교를 한다. “그렇게 한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자살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냐.”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야단을 친다. “이봐! 일어나. 그런 곳에 쪼그리고 앉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고 있으면 안 돼!” 그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덤벼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말하기는 간단할 거예요. 당신은 죽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어요. 지금부터 혼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 당신은 아직 살아 있어.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 인간답게 살아야지, 살아 있으면서 죽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¹³⁾

고통극복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진다

미국에서 유대인 할머니가 한국인 며느리와 함께 차법사를 찾아왔다. 차법사를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집에 항상 죽은 남편의 영혼이 돌아다니는데 나타나지 않게 없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매일 밤 할머니와 자식들이 사는 집에 나타나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할머니는 아들과 딸 모두 훌륭한 교육을 시켰다. 수년 전 남편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남편이 소위 거액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모두 일류 대학까지 공부 시킬 수 있었다. 차법사는 유대인 할머니가 이야기

12) 이이다 후미히코 <사는 보람의 창조> 379-380쪽

13) 이이다 후미히코 <사는 보람의 창조> 381-382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의 남편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고, 바로 ‘자살’, 교묘히 조작된 사고사임을 확신했다. 유태인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사고사가 아니라 자살입니다.”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자살하기 직전 할머니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남편은 왜 사고사를 가장해 교묘하게 자살해야만 했을까.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보험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막대한 교육비는 물론 생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할아버지는 몇 백만 달러짜리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식들의 교육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숨 안 쉬고 죽어 질식사 내지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에게, 자살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태인 할아버지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구명시식을 했을 때 차범사는 또 한 번 놀랐다. 구명시식을 통해 나타난 그 할머니의 남편의 영혼 뒤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여러 영가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바로 그들은 똑같이 자녀교육을 위해 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한 유태인들의 영가였다. 유태인들의 강한 민족성 뒤에는 이같은 강한 교육열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은 왜 다른 많은 유태인 영혼과 함께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영혼의 세계에서 자살자의 영혼은 가장 대접 받지 못하는 부류이기 때문이다. 14)

생사학을 창시한 20세기의 영적인 스승 퀴블러 로스(Elisabeth Kuebler-Ross) 여사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세심하게 보살핌으로써 그 중 단 한 사람도 자살을 택하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었다. 환자들이 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라면 약물 처방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증을 치료했고, 가족 문제라고 말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우울증 때문이라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존엄성을 지키다가 후회 없이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돕는 데 있었다.

자살은 아직 자신이 배워야 할 과제를 남겨둔 채 죽는 행위이다. 자살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면 그녀는 다시 상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15)

14) 차길진 <영혼은 비자가 없다> 93쪽

15) 퀴블러 로스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 The Wheel of Life> 274쪽.

퀴블러 로스에 따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일종의 과제로서 스스로 수용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라고 한다. 우리의 영혼은 이 과제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자살을 택함으로써 과제를 마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음 삶에서 똑같은 과제를 만나게 된다. 결국 자살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며, 미뤄진 과제는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를 따라 다니게 된다. 퀴블러 로스의 말은 최면치료를 통해 밝혀진 것과 일맥상통한다.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피해 자살했다면, 남겨진 영혼은 영영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새로운 삶에서는 원래 감당해야 했던 과제와 함께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의 책임까지도 짊어져야 한다. 16)

퀴블러 로스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은 상실의 고통을 비롯해 다양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최면치료를 증언하고 있다. 어머니 죽음의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해 "나도 빨리 죽어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는 딸에게 어머니의 영혼은 최면치료를 통해 '빛'으로 나타나 다음같은 메시지를 주었다.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그쪽에서의 일이 끝나지 않았어. 너는 거기에 남아서 한순간 한순간을 힘껏 살지 않으면 안돼. 아름다운 지상에 산다는 선물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는 거야. 이것만은 말해두겠어. 저녁 노을도, 꽃도, 소중한 사람도 하나하나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쏟아 줘.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니까.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어." 17)

16) 오진탁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43, 44쪽

17) 이이다 후미히코 <사는 보람의 창조> 393쪽